

P.I.R.A.M 국어 생각의 절정
LEET언어이해 선별집 5주차 해설지

5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3LEET [28~30] 인문 '법과 폭력의 관계' ☆☆☆☆

1문단

① **벤야민**은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함을, 그리고 그것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함을 밝히고자 했다. ②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그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입장 차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① #주장 제시 #화제 제시

'벤야민'의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이 조금 길지만, 1문단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끊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다면, 조금은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납득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벤야민'은 '폭력'의 작동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부터 확인해봅시다. 무언가를 금지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당연한데, '벤야민'은 '폭력'이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폭력'이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벤야민'이 후자를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지문은 '폭력과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카테고리 나누기

'벤야민'은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입장 차이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첫 문단부터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 **벤야민**은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탄생과 구성 과정에 개입함을, 그리고 그것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제정하고 부과하며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함을 밝히고자 했다.

첫 문단의 첫 문장입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끊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결국 '벤야민'이 생각한 '폭력과 법의 관계'가 화제일 것이라는 점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었죠?

2문단

① **벤야민**에 따르면, **고전적인 자연법론**은 법 창출과 존속의 근거를 신이나 자연, 혹은 이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로부터 구한다. ② 또한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반면 **법실증주의**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④ **벤야민**은 자연법론보다는 법실증주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⑤ 근분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하는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법 제정 과정의 폭력을 읽어낼 단서를 제공해 주어, 폭력 보존의 계보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먼저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창출하고 존속하는 근거로 '형이상학적 · 외부적'인 실체의 권위를 든다고 해요. '고전'이라는 이름답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모습입니다. 서양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나아가 '자연법론'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 즉 '법의 창출과 존속'이라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네요. 이때 '목적'이라는 말을 보고서 1문단에서의 '카테고리'가 떠올라야겠죠? 1문단에서는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제시되었는데, '자연법론'에서는 외적 실체를 근거로 행해지는 '법'이라는 '목적'은 정의롭기에, 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폭력' 역시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문단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가볍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죠?

③ #정의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한편 '법실증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합니다. '법'이라는 목적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졌다면, 즉 '정의롭게' 만들어졌다면 '폭력'을 '정당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재진술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어쨌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양상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은 '목적의 정의로움'과 '수단의 정당성'이 엮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의롭다면 수단도 정당하고, 수단이 정당하게 쓰일 만하다면 목적도 정의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목적이 정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연법론'에서는 '외적 실체의 권위'를, '법실증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들고 있는 것이예요. 이런 차이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벤야민'은 이 중에서 '법실증주의'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실증주의'는 '헌법'이라는 근분규범의 개념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법실증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으로부터 '목적(법 효력)의 정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끌고 내려 오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헌법' 자체가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초'라는 것은 '기초를 만드는 것' 정도의 의미로, 법체계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강조하기에 그 속에서 '폭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더 잘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연법론'을 따르려면 법이 아닌 '외적 실체'를 가져와야 하는데, '법실증주의'에서는 철저히 '법체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벤야민'이 탐구하고자 한 것은 '법과 폭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기에는 '법실증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납득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근본규범으로 전제된 헌법으로부터 법 효력의 근거를 도출하는 법실증주의는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법 제정 과정의 폭력을 읽어낼 단서를 제공해 주어, 폭력 보존의 계보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앞 문장에 제시된 '법실증주의'의 정의와 엮어 재진술을 잡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법과 폭력의 관계'라는 화제로 그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라도 요구하는 능력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보도록 합시다.

3문단

①그렇지만 **벤야민**은 법실증주의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자연법론과 공유한다고 보았다. ②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경우든,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든, 목적과 수단의 상호지지적 관계를 전제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③그러나 **법의 관심**은 이러저러한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폭력 자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파악했다.** ④또한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만을 정당한 '강제력'으로 상정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문제에 관해 양편 모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아 왔음을 지적했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렇게 '법실증주의'를 좋게 보는 것 같더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의 측면에서 '자연법론'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은 각각 '법 체계'와 '폭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엮어 있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공통점으로 생각해도 내용이었어. '벤야민'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2번 문장은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여야 합니다.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주장이고,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법론'의 주장일 것입니다. '벤야민'은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상호지지적'으로 명명하네요. '목적'과 '수단'이 '상호'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문 내용의 재진술이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된 정보들의 재진술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주장 제시 #재진술

'벤야민'이 생각한 법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앞에서 계속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야기한 내용들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벤야민'이 보기에 법은 '법 체계'라는 목적이 정의로운지, 혹은 '폭력'이라는 수단이 정당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예요.

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법의 폭력 자체의 수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 역시 1문단에서 제시한 '벤야민'의 주장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네요. 1문단에서 '벤야민'은 폭력이 '법 자체를 제정·부과·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과 '폭력'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니까요. 즉, '법의 폭력'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법'에는 '폭력'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④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벤야민'이 보기에 법은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 즉 '법의 폭력'만을 정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모든 폭력적인 것들은 '폭력'으로 치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벤야민'이 보기에는 법이 하는 것도 똑같이 '폭력'인데, 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모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들도 '법'이라는 목적 속의 '폭력'이라는 수단을 정당하게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벤야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러나 법의 관심은 이러저러한 목적 혹은 수단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폭력 자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파악했다.

'목적'과 '수단'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앞문장의 내용을 끌고 오는 것은 기본이고, 1문단에서부터 잡아 둔 대전제를 바탕으로 '법의 폭력'이라는 말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문 지문은 이렇게 결국 다 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4문단(1)

①벤야민은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갖추어 온 법의 내재적 폭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다. ②전자의 사례로 무정부적 위력이나 전쟁 등을, 후자의 사례로 행정제도와 경찰제도 등을 제시한 점에서 이들이 각각 근대 국가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대응하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법정립적 폭력**은 **법 목적을 위한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④여기서 폭력은 법 제정의 수단으로 복무하지만, 목적한 바가 법으로 정립되는 순간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적 성격을 넘어서 힘 자체가 된다. ⑤**그렇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또는 선후관계로 편입될 수 없다.**

①~② #주장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벤야민'의 관심사는 '법의 폭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을 새롭게 개념화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시다. 비교/대조될 것이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겠죠?

일단 2번 문장의 내용부터 이해해봅시다. 두 개념의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전자는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후자는 '법'

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립'과 '보존'이라는 말은 각각 '입법'과 '행정'이라는 말로 대응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제재별 독해-법' 파트에서 배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행정입법' 지문을 참고해서 정리합니다.) '벤야민'이 제시한 각 개념의 예시를 보면 단순히 '입법'과 '행정'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무정부적 위력 / 전쟁', '행정제도 / 경찰제도'는 '입법', '행정'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즉, 기존의 '입법', '행정'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뜻인데, '벤야민'의 정확한 주장은 무엇일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법정립적 폭력'은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강제력'이 '정당화된 폭력'의 위치를 독점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속, 벌금 등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국 '정당화된 폭력'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법'을 '정립'하기 위해, 혹은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제력도 '폭력'이라는 점에서 '법정립적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④~⑤ #재진술

이때 '폭력'은 법 제정, 즉 '법정립'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지만 목적한 바(강제력=법의 폭력)가 법이 되는 순간 힘 자체가 된다고 합니다. '폭력'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했던 '자연법론', '법실증주의'의 주장과 달리, '벤야민'이 보기에 '폭력'은 '법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5번 문장을 읽어봅시다. '벤야민'이 보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수단' 혹은 '선후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법의 폭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과 '폭력'은 누가 목적이고 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과 '폭력'이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는 1문단에서도 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 첫 문장에서부터 '벤야민'은 '폭력'이 '법'의 모든 과정에서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이 '법'과 사실상 같은 말임을 주장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대전제는 지문 전체를 구속한다는 것,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⑤ 그렇기에 법과 폭력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또는 선후관계로 편입될 수 없다.

앞문장들과 재진술시키며 '법정립적 폭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문단과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첫 문단에서 제시하는 대전제, 즉 '화제의 틀'은 확실하게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4문단(2)

⑥ 한편 법보존적 폭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확인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로써 법의 규율 대상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노력들이다. ⑦ 법은 구속적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보존되며, 그 보존을 통한 재확인이다. 지금 법을 구속하는 것이다. ⑧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 짓는다. ⑨ 신적 폭력은 법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다. ⑩ 벤야민은 이것이 신화적 폭력의 순환 회로를 폭파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끔 하는 적극적 동력임을 주장한다.

⑥~⑦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다음은 '법보존적 폭력'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노력이라고 해요. '폭력' 그 자체가 된 '법'을 '정립'했다면 그 법을 확인·적용하며 '법의 폭력'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 '법'은 구속력을 가진 '폭력'의 일종으로 '보존'되고, 그 '보존'을 통해 '법의 폭력'이 가진 구속력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보존적 폭력'에 대해 설명하는 6번 문장과 7번 문장은 사실상 같은 말로 재진술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⑧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벤야민'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이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법을 '정립'한 후에는 그 법을 '보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를 '순환 회로'라 부르는 모습이에요. 결국 다 같은 말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벤야민'은 이러한 '순환 회로'를 바탕으로 한 '법의 폭력'을 '신화적 폭력'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왜 '신화'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같은 말의 반복으로 강조했던 '법의 폭력'을 곧 '신화적 폭력'이라고 한다는 것만 제대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이는 '신적 폭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는데, '신적 폭력'은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⑨~⑩ #정의 제시 #비교/대조 #주장 제시

'신적 폭력'은 법, 즉 '신화적 폭력'을 허물어뜨리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순환 회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화적 폭력'과 구별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기존의 질서'에 해당하는 '신화적 폭력'의 '순환 회로'를 폭파할 수 있다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벤야민'이 하고 싶었던 말은 '법의 폭력', 즉 '신화적 폭력'의 '정립-보존-정립...'이라는 '순환 회로'를 폭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⑧ 더 나아가 그는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이러한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신적 폭력과 구별 짓는다.

'신화적 폭력'의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순환 회로'라는 말이 어떤 내용의 재진술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비로소 독서 실력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문단

① 출간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폭력 비판을 위하여』가 반세기 넘게 지나 법과 폭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테리다의 비판적 독해가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② 테리다는 『법의 힘』에서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로 정립하는 법의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다. ③그는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비로소 그려진다고 설명했다. ④또한 법보존적 폭력은 법정립적 폭력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정립은 자기보존적인 반복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며, 자신이 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⑥더 나아가 그는 법을 정립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과 법을 허물어뜨리는 신적 폭력이 뚜렷이 구분될 수 없으며, 만일 후자를 벤야민이 지지했던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자칫 메시아주의*로 귀결되거나 전체주의에 복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 메시아주의: 세상이 사탄의 힘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탄을 물리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

①~③ #주장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재진술

이렇게 '벤야민'이 '법과 폭력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데리다'가 비판적 독해를 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비판적 독해'라는 말로부터 '데리다'의 주장에는 '벤야민'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데리다'는 자신의 책에서 '법의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합법화된 폭력', 즉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화'에 '수반'되는 것으로 구체화시킨 것이죠. 이는 3번 문장에서 '법 언어 행위'라는 말을 통해 재진술되는데, 쉽게 말해서 '법'을 통해 '발화'하면 적법한 권력과 부정의한 폭력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예요. '벤야민'이 말한 것처럼 '법'이 '폭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폭력'이 '언어 행위'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합법화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벤야민'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④~⑤ #주장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리다'가 보기에 '법보존적 폭력'은 이미 '법정립적 폭력'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5번 문장의 내용처럼 '정립'은 '보존'을 요구하고, '보존'을 위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정립'과 '보존'의 관계를 '벤야민'처럼 단순한 '순환 회로'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말'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⑥ #주장 제시 #비교/대조

마지막입니다. 그는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을 구분했던 '벤야민'과 달리, 둘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의 폭력'이든 그것을 깨부수는 폭력이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신적 폭력'을 '벤야민'이 지지한 방식대로 정당화할 경우, '메시아주의'나 '전체주의'라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신화적 폭력'(=법)이라는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는 것을 정당화하여 극단적인 사상으로 변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데리다'와 '벤야민'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때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사실상 앞에서 열심히 이해했던 '벤야민'의 주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출간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한 『폭력 비판을 위하여』가 반세기 넘게 지나 법과 폭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데리다의 비판적 독해가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데리다'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판적 독해'와 같은 말을 바탕으로 '데리다'와 '벤야민'의 주장이 비교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민감해지는 것에도 익숙해지려고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보도록 하세요.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㉔

- ①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을 신화적 폭력에, 법보존적 폭력을 신적 폭력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화적 폭력이랑 신적 폭력은 다른 것이었지.
해설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보여 주는 '순환 회로'를 '신화적 폭력'으로 명명하고, 이 '순환 회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 '신적 폭력'을 제시했습니다. '벤야민'의 핵심 주장에 대해 묻고 있으니 쉽게 지워낼 수 있어야겠죠?

- ② 벤야민은 신적 폭력이 도래함으로써 법 정립과 법 보존의 순환 회로가 더 강고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적 폭력은 순환 회로 부수는 것이었지.
해설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죠? '신적 폭력'은 '순환 회로'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강고하다'의 뜻을 몰랐다고 해도, 이 정도의 단어는 '강'과 같은 단어의 뉘앙스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굳세고 튼튼하다.)

- ③ 벤야민은 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힘을 상실하여 소거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과 폭력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것이 핵심이지.
해설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단이었던 '폭력'이 법 제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힘 자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법'과 '폭력'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게 '벤야민'의 주장이었죠?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데리다는 폭력의 적법성이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의 발화수반적 힘이 폭력의 적법성을 소급적으로 정립한다고 했지.
해설	‘데리다’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법’이 가지고 있는 ‘발화수반적 힘’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법 언어 행위’가 ‘폭력의 적법성’에 대한 경계를 ‘소급적’으로 정립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데리다’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 폭력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법 언어 행위’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번 선지에서는 이를 ‘사후적’이라는 말로 재진술한 것이네요. 어휘력만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⑤ 데리다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법정립적 폭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6번 문장,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보존적 폭력은 법정립적 폭력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했지.
해설	선지에서 말하는 ‘법을 보존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폭력들이’ 곧 ‘법보존적 폭력’의 정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법보존적 폭력’이 사실 ‘법정립적 폭력’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데리다’가 ‘벤야민’의 책을 ‘비판적 독해’하며 주장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벤야민’과 비교하며 확실하게 이해했던 기억이 있죠?

29.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연법론 / ㉡ 법실증주의

- ‘벤야민’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입장들입니다. 둘은 ‘법=목적’, ‘폭력=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법’이라는 목적이 정의로운 이유를 각각 ‘외부적 실체’와 ‘절차적 정당성’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어요. ‘벤야민’은 이들의 공통점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들이 법이 저지르는 폭력만을 ‘강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채로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 ㉠은 정당성 판단의 증거가 될 법적 권위를 법 바깥에서 구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법론에서는 외부적 실체를 강조했지.
해설	‘벤야민’에 따르면, ‘자연법론’에서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이 ‘외적 실체’로부터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이었죠. 발문을 보자마자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어야 해요.

② ㉡은 수단의 절차적 정당화 여부에 따라 법의 폭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실증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지.
해설	역시 미리 생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벤야민’이 보기에,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폭력성’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법론’과의 차이점이기도 했죠?

③ ㉠과 ㉡은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쪽이 정당화되면 다른 쪽의 정당성도 보증된다고 전제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목적과 수단의 상호지지적 관계를 전제했지.
해설	‘벤야민’에 따르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모두 ‘법’이라는 목적과 ‘폭력’이라는 수단이 서로 정당하기 때문에 ‘법의 폭력성’이 정의롭다고 주장했어요. ‘벤야민’은 이를 ‘목적과 수단의 상호지지적 관계’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라고 이야기했구요. ‘벤야민’의 주장을 중심으로 지문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④ ㉠보다 ㉡이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데 더 유용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벤야민은 법실증주의를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삼았지.
해설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은 곧 ‘벤야민’이 말한 ‘법의 폭력’입니다. ‘벤야민’은 이러한 폭력을 비판하기 위한 가설적 토대로 ‘법체계의 자기정초적 성격’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가 적절하다고 했어요. 물론 ‘법실증주의’ 역시 3번 선지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한계가 있었지만요.

⑤ ㉠과 달리 ㉡은 법적으로 승인된 폭력이 자신을 법 바깥의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기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모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게 벤야민의 주장이잖아.
해설	'자연법론'이든 '법실증주의'든, 법이 스스로 저지르는 '법의 폭력'만이 정당하다며 그것을 다른 폭력들과 차등화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벤야민'의 비판이었습니다. 역시 발문을 읽자마자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죠? 가법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법 제정 권력을 다룰 때, 논의 대상은 의회의 입법권으로 좁혀져야 한다.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 구성된 권력이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해 정초된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다. 따라서 국가법이 제정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폭력이 난입할 여지는 없다.

- 밑줄 친 두 부분을 바탕으로 '벤야민'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야민'은 '법정립적 폭력'에 대해 다루면서 '법정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아가 '법'이라는 것 안에 '폭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죠. A는 이 두 가지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B: 국가법은 불법체류자 등을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바로 그 배제를 통해 규율 대상으로 포획한다. 이때 법과 폭력은 안과 바깥이 구분되지 않는 '피비우스의 띠' 안에서 무한히 순환한다. 우리는 더 나은, 혹은 덜 나쁜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 안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화적 폭력을 넘어서 국가법 자체를 탈정립할 신적 폭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불법체류자'와 같은 임팩트 있는 단어가 꽂히면 안 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법과 폭력은 순환'과 '신적 폭력을 지지'네요. 이는 '벤야민'이 주장한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B는 A와 달리 '벤야민'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A는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데서, 벤야민과 관점을 같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벤야민과 정반대되는 말을 한 거지.
해설	A가 '법 정립 과정'에 폭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맞는데, 이는 '벤야민'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죠?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법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A는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주장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4번 문장,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데리다는 저 구분을 소급적으로 정립한다고 했지. 그럼 애초에 기원은 같다는 소리 아니야?
해설	일단 A가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 폭력'이 처음부터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강제적 힘에 의해 정초된 법'은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했으니깐요. 이는 둘 사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을 '문제'라고 하며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던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데리다'의 경우, '적법한 강제력'과 '적법하지 않은(=부정의한) 폭력'에 대해 '법의 발화수반적 힘'이라는 개념과 엮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은 '발화수반적 힘'을 통해 합법화된 폭력을 '소급적'으로 정립합니다. 이는 그것이 적법하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중에야 결정한다는 것으로, 그들의 기원 자체는 같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원 자체는 '폭력'으로 같지만, '법 언어 행위'를 통해 '소급적·사후적'으로 적법성이 판단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A는 '데리다'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야겠네요. '데리다'의 주장을 바탕으로 '폭력의 기원'에 대해 추론해야 하는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문에 적혀 있는 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능 수준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선지였어요. 이러한 추론적 사고과정에도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③ B는 법과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지지한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9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도, 벤야민도 신적 폭력을 지지했지.
해설	<보기>를 읽으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신적 폭력을 지지'한다는 것은 B와 '벤야민'의 공통점이었어요.

④ B는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데서, 벤야민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데리다와는 견해를 같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8번 문장,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벤야민과는 같아하고 데리다와는 달리하는 것이지.
해설	B가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구분을 전제한 것은 맞지만, 이는 '벤야민'의 주장과 같고 '데리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벤야민'과 '데리다'

	의 주장을 정확하게 비교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 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	---

- ⑤ A와 B는 모두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데서, 벤야민과 입장을 같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벤야민의 입장이 아니지.
해설	일단 A처럼 ‘법 정립 권력’을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것은 ‘벤야민’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나아가 B에서는 ‘법의 정립’을 ‘입법권의 자장’을 넘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지, ‘입법 권력’에만 한정 지은 적이 없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정보를 끌고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어려운 어휘와 논리 전개 등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다 같은 말’을 한다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지문이었습니다. ‘벤야민’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흐름 속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추론을 요구하는 선지들에도 주목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하겠네요.

5주차 <과학 제재의 지문 읽기>

2009LEET [20~22] 과학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 ☆☆☆

1문단

①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국내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②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그러자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인 **다비-수루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④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 전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① #화제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현재 한 조각인데, 원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읽어봅시다.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한반도 역시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 아니라 '북부/남부'로 나뉜 두 조각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를 '다비-수루 벨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학적 기원'이라는 화제까지 잡아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국내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에클로자이트' 같은 임팩트 있는 단어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문단

①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인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②**히말라야 조산대**는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아시아 판)**과 **인도 대륙(인도 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대륙 충돌대이다. ③두 대륙의 충돌 이전에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攝入)**이 일어났다. ④이때 섭입된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높은 압력에 의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⑤해양 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두 대륙 사이의 해양은 점점 좁아져 마침내 두 대륙이 충돌하였다. ⑥이때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양 지각 일부가 산 위로 밀려 올라갔다. ⑦또한 인도 대륙의 앞부분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⑧그 이후 두 대륙 충돌 전에 이미 섭입된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작용하면서 인도 대륙을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⑨그 결과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에클로자이트'는 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놓치면 안 돼요. 일단 '대륙의 충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1문단에서 언급한 '다비-수루 벨트'가 떠올라야겠죠? 이 벨트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이니깐요.), 나아가 '변성암'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질이 '변'하는 '암'석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정의이니깐요!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의 지질학적 의미는 오래 전 아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대륙 충돌대인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륙 충돌'이라는 포인트에 계속 주목하면서 '히말라야 조산대'의 정의를 체크하시고, 이를 통해 '에클로자이트의 형성 과정'이라는 내용을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두 대륙의 충돌 이전,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났다고 해요. '섭입'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대륙 사이에 해양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해양 아래 있던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섭입되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입된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높은 압력에 의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고 해요. 지하 깊은 곳의 압력이 높다는 것, 높은 압력에 의해 암석이 변성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에클로자이트'가 만들어진 과정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겠죠?

⑤~⑦ #과정 제시 #재진술

해양 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두 대륙 사이의 해양은 점점 좁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양 밑에 있던 지각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양이 좁아지고 두 대륙이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압축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축력에 의해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양 지각 일부가 산 위로 밀려 올라갔다고 해요. 압축력에 의해 충돌한 부분이 솟아서 산맥이 되었다는 것, 이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도 대륙의 앞부분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

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고 해요.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섭입되었으니, 인도 대륙의 앞부분 역시 아시아 대륙 밑으로 섭입되었겠죠.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하게’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⑧~⑨ #재진술 #화제의 흐름

그 이후 두 대륙 충돌 전에 이미 섭입된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작용하면서 인도 대륙을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은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끝없이 아시아 대륙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인도 대륙도 같이 밀려 들어온 것이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고 해요. 앞에서 ‘해양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높은 압력으로 인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고 했는데, ‘인도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대륙 지각’이 맥락상 ‘인도 대륙 지각’을 뜻한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에클로자이트’는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에 의해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은 ‘에클로자이트’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와 관련된 의미’예요. 이 암석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어떤 지질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계속 읽어 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⑨그 결과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결국 이 문단은 ‘에클로자이트’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단이기며, ‘에클로자이트’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 문장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4번 문장과 엮어서, ‘에클로자이트’는 결국 ‘높은 압력’에 의해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3문단

①히말라야 충돌대 형성 시 지하로 끌려 들어가던 인도 대륙 지각이 지하 120 km 지점의 맨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의 맨틀보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었다**. ②그렇지만 **해양 지각**은 섭입 시 형성된 고밀도 광물에 의해 밀도가 높아져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으므로** 결국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되었다. ③이때 일부 맨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 ④그리하여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⑤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

①~③ #정의 제시 #재진술

‘히말라야 충돌대’가 형성될 때, 인도 대륙은 추처럼 작용하는 해양 지각 때문에 지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지하 깊은 곳으로 끌려가던 인도 대륙이 맨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의 맨틀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으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 지각은 섭입 시 형성된 고밀도 광물, 즉 ‘에클로자이트’에 의해 밀도가 높아져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다고 해요. ‘섭입 시’에 ‘해양 지각’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때의 광물을 ‘에클로자이트’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에클로자이트=고밀도’라는 새로운 정의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렇게 밀도가 높은 ‘에클로자이트’가 계속 해양 지각을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는 것까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밀도가 낮아 계속 떠오르려는 인도 대륙 지각은 붙어 있던 해양 지각과 끊어져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부 맨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고 하네요.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모두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④~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그 결과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예요. ‘해양 지각’의 경우 아시아 대륙 밑에 섭입된 후 계속 가라앉아 충돌대의 일부를 이루게 된 것이고, ‘에클로자이트’는 해당 해양 지각에도 있으며 해양 지각과 끊어져 지표에 노출된 대륙 지각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맨틀 물질’은 이러한 대륙 지각에 붙어서 올라온 것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표에서 ‘에클로자이트’가 관찰된다면 그 근방에서 대륙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예요. 원래 ‘에클로자이트’는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지표로 올라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륙 충돌 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일 테니 말입니다. 결국 홍성 지역에서도 발견된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그 지역이 대륙 충돌대임을 알려 주는 것이었어요. 지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던,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가 제시되는 순간입니다. 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쪽 나열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4문단

①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루 벨트**에서도 2억 2천만~2억 3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 중기)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 ②이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③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두 대륙은 4~5억 년 전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로서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현 위치에서 충돌하였다**. ④그리고 충돌 시 **남중국 판의 앞부분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⑤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 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앞에서 설명했던 다비-수루 벨트에서도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히말라야 조산대’가 아니라 ‘다비-수루 벨트’였어요.

③~④ #정의 제시 #재진술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두 대륙은 적도 근처에 함께 위치하다가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한 뒤 현 위치에서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 시 남중국 판의 앞부분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남중국 판’이 ‘인도 대륙’, ‘북중국 판’이 ‘아시아 대륙’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던 해양 지각이 ‘북중국 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나면서 결국 두 대륙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⑤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한편, 충돌대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산맥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 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데, 이는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럼 ‘충돌’ 시엔 강력한 ‘압축력’이 발생하여 산맥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인장력’(당기는 힘)이 발달하여 높은 산이 낮아졌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앞의 내용을 최대한 끌고 오면서 확실하게 납득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비-수루 벨트’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알아내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니까요. 이러한 화제를 잊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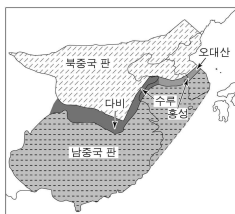
하이라이트 문장

①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루 벨트에서도 2억 2천만~2억 3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 중기)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

‘다비-수루 벨트’에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이기 마련이에요.

5문단

①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연대 측정 결과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 밝혀졌다. ②이는 다비-수루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의 것이다. ③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이 증거가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홍성 지역은 산둥 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은 아니지만 에클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자이트와 함께 맨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⑤추가적으로 **오대산 지역**에서 판의 충돌이 2억 5천만 년 전(페름기 말기)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⑥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①~③ #재진술 #화제의 흐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다비-수루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의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증거는 중국의 ‘다비-수루 벨트’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문의 그림을 참고하면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네요.

④ #재진술

한편, 홍성 지역은 충돌대의 동쪽인 산둥 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충돌 이후의 인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홍성 지역 역시 충돌대의 일부일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인장력’에 의해 산맥이 낮아지는 양상을 설명했던 것이네요. 모든 정보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맨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 대륙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네요.

⑤~⑥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추가적으로 한반도의 동쪽인 오대산 지역에서 판의 충돌이 ‘다비-수루 벨트’ 형성 이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대가 나올 때는 전/후만 정확하게 따져 줘도 충분합니다.) 이는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반도 동쪽에서 먼저 대륙 충돌이 시작되어 중국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에 따르면 한반도는 원래 한 조각이 아니었고,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처럼 원래 적도 근처의 대륙이었을 것이라는 추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지문의 화제인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까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 이해에 어떻게 중요한지 등을 확실하게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정보들을 쏟아낸 것이니까요.

20.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윗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①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2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에클로자이트'는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을 받은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했던 내용이지?

② 산동 반도와 흥성 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 지문의 핵심이죠? 산동 반도가 위치한 '다바-수루 벨트'와 흥성 지역 모두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이 시작되었어요.

③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생성된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2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계속해서 '그렇지'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니까요. '에클로자이트'는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을 받은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④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돌 전에도 해양 지각에서 만들어지지.
해설	'에클로자이트'는 '충돌 이전'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과 '충돌 이후' 대륙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변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클로자이트'의 형성 과정을 확실하게 납득했다면 대륙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⑤ 대륙 충돌 전 대륙들 사이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4번 문장,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두 대륙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정보였죠?

21. 윗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판 경계의 세 가지 유형

- 판 경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발산 경계: 이 경계에서는 맨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각이 기존 지각을 양옆으로 밀어낸다.

예) 대서양 바다 밑의 대양저 산맥

- 먼저 '발산 경계'입니다. 이는 맨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각이 기존 지각을 양옆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해요. 이는 대륙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던 지문과는 무관한 판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밀어낸다고 했으니,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수렴 경계: 이 경계에서는 해양판 섭입이나 대륙 충돌에 의해 해양 지각이 맨틀로 들어가 소멸된다.

예) 1) 섭입형: 일본 동해안, 안데스 산맥 지역

2) 충돌형: 알프스, 히말라야, 우랄 조산대

- 다음은 '수렴 경계'입니다. 해양판 섭입 및 대륙 충돌에 의해 해양 지각이 맨틀로 들어가 소멸되는 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지문에 제시된 판 경계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경계에서는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 등이 발견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문에 나왔던 '히말라야 조산대'가 '충돌형'으로 제시된 것을 보니, '충돌형'은 '해양 지각의 섭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섭입형'이든 '충돌형'이든 '수렴 경계'에서는 모두 '해양 지각'도 발견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하겠네요.

3. 유지 경계: 이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됨 없이 판 경계면을 따라 두 판이 수평 이동한다.

예)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

- 마지막은 '유지 경계'입니다. 이는 새로운 지각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이 두 판이 수평 이동하는 경계예요. '발산 경계'와 마찬가지로 대륙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던 지문과는 무관한 판 경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① 산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 문장, 2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돌을 안했으니 에클로자이트도 없지.
해설	산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은 '유지 경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섭입이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에클로자이트'도 형성되지 않았겠죠.

②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 문장, 2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양 지각이 섭입됐으면 에클로자이트 있지.
해설	안데스 산맥 지역은 '수렴 경계'의 '섭입형' 사례입니다. 이는 지문에서 인도 대륙 아래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으로 섭입된 것과 대응되겠죠? 당연히 안데스 산맥에서도 해양 지각이 대륙 아래로

<p>섭입된 후 지하 깊은 곳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현무암질 화성암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모습입니다.</p>
--

- ③ 히말라야 조산대에는 해양 생물 화석이 나타난다.
- ④ 알프스 조산대에는 맨틀 물질이 나타난다.
- ⑤ 우랄 조산대에는 습곡이 나타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부 충돌형이네.
해설	세 지역은 모두 '수렴 경계의 충돌형 사례입니다. 원래 바다였기 때문에(그리고 해양 지각이 분포하기 때문에) '해양 생물 화석'이 나타날 것이고, 대륙 지각이 끌고 올라온 '맨틀 물질'도 나타날 것이고,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만들어진 '습곡'도 나타날 것이에요.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22. ㉠이 사실일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p>㉠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p>

- 이것이 사실일 경우,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중심으로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다비-수루 벨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는 모습도 보이겠지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대륙판들의 충돌이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대산 쪽 충돌이 더 오래 전에 일어났었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동쪽의 오대산 지역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판의 충돌이 일어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한반도 서쪽의 홍성 지역에서는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으며, 한반도의 서쪽에 있는 중국의 '다비-수루 벨트'에서는 2억 2천만~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이는 대륙 충돌이 동→서 방향으로 일어났음을 알려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는 경우 반드시 선지화된다는 태도까지 챙겨가도록 합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한반도는 원래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비-수루 벨트랑 똑같지.
해설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다면 훌륭했을 내용입니다.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으니 한반도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 ③ 충돌 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밑으로 섭입되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남쪽이 북쪽 밑으로 섭입되었다고 했지.
해설	계속 강조하지만,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는 '다비-수루 벨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비-수루 벨트' 형성 과정에서, 남중국 판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고 했었죠? 따라서 한반도 남부 지역의 앞부분이 한반도 북부 지역의 밑으로 섭입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네요.

- ④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는 해양이 있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홍성-오대산 충돌대는 대륙 충돌 지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는 원래 해양이 있었을 것인데, 남부 지역 밑의 해양 지각이 북부 지역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되면서 대륙 충돌이 일어났겠지요. 발문을 보면서부터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지요?

- ⑤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은 대륙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낮아졌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 문장,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다비-수루 벨트'의 동쪽 지역인 산둥 반도가 그러하듯이, 그보다 더 동쪽인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은 대륙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낮아졌을 것입니다.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면서 읽었다면,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과학적 서술들을 최대한 상상하며 납득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과학 지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꽤나 고전했을 거예요. 해설지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많은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5주차 <기출 유사 지문 - 끈 밀어올리기>

2019LEET [16~18] 사회(경제) '심적 회계' ☆☆☆

1문단

①경제 이론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론에서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경제학은 이들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최근 이 흐름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을 문제 삼는 행동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었다.

①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예외 제시

먼저 '경제 이론'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동 예측'이 그 정의예요.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제시하는 정의이므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경제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당연히 이러한 '예외'에 주목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죠? 화제를 명확하게 잡아둘 수 있겠네요.

②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화제 제시

이렇게 예측과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상'한 '현상'이네요. 원래대로라면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현상'이니까요.

이런 '이상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이 발전하는데, 이 흐름을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비판'이 주도했네요. 일단 '행동경제학'이 '전통적 경제학'과 비교된다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가정'이 그 비교 포인트라는 점까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을 기준으로, 경제 주체들의 '이상 현상'을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거예요. 지문의 흐름이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이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경제학은 이들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최근 이 흐름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을 문제 삼는 행동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었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죠?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이라는 정보가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 '이상 현상'이라는 비교 포인트까지 살려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첫 문단에서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두면 이후의 독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2문단 (1)

①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 영역이 저축과 소비에 관련한 분야이다. ②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면서 전 생애 차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한다. ③이들은 또한 돈에는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꼬리표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아 전용(轉用)이 가능하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고 가정하며,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후생을 높여 준다고도 믿는다. ④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비교적 고르게 유지할 것이며 소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퇴직 후 급속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본격적으로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비교할 것인데, 이들은 '저축과 소비'에 관련한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저축과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이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되는 정보들은 항상 그 비교가 시작되는 비교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해요! 아무튼, '저축과 소비'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각 경제학의 주장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②~③ #주장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전통적 경제학'의 견해가 등장하네요. 바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을 '행동경제학'이 비판할 것이므로, 아주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최선'을 알고,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그 계획을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열되는 정보들은 한 마디로 정리하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합리적'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범위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즉, 돈 사용처의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자유롭겠죠? 항상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할 수 있는 것도, 돈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전용'이 가능하다면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후생을 높여 준다는 것.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④ #주장 제시 #재진술

'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소비 수준'과 '소득 수준'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소비 수준'은 일생 동안 고르게 유지될 것이지만, '소득 수준'은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을 그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 생애 차원에서 자신에게 '최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아가 지금 우리가 '저축과 소비'에 대해 읽고 있으므로,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는 중년기에 비로소 '저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며 '예측'한 인간들의 '행동'인 것이네요.

2문단 (2)

⑤그러나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⑥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이상 현상을 '유동성 제약' 개념을 통해 해명했다. ⑦즉 금융 시장이 완전치 않아 미래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⑤ #문제제정 제시 #화제의 흐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소비 패턴'과 '소득 패턴'이 유사

하다는 것이죠.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에서의 예측'과 '현실에서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의 설명을 '행동경제학'이 비판할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⑦ #해결책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제약' 개념을 바탕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예요. '유동성'은 '흐흐를 유 / 動 움직일 동 / 性 성품 상'이라는 한자로 구성된 단어인데, 돈이 '흐르고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금을 시장에서 얼마나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이러한 '유동성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소득 수준' 정도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중년기에 높아질 미래 소득을 담보로 청년기에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벌어 모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 노년기에도 금융 시장이 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버는 만큼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동성'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리고 '소비 수준'과 '소득 수준'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을 비판하며 '행동경제학'이 등장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그러나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통적 경제학'의 이론적 '예측'이 '현실'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상 현상'이라는 화제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해요. 첫 문단에서부터 화제를 잡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3문단

①행동경제학에서는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한다. ②사람들은 현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주택 등 **각종 자산을 마음속 별개의 계정에 배치하고 그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③자산의 피라미드 중 맨 아래층에는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현금**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출에 사용된다. ④많은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축 예금이 있는데도 연리 20%가 넘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아 해결한다. ⑤금융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예금을 인출해 지출을 하는 것인데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저축을 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⑥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은 퇴직 연금이나 주택과 같이 노후 대비용 자산들이 놓여 있는데, 이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보되는 자산들**이다. ⑦심적 회계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특정 연도에 행하는 소비는 일생 동안의 소득 총액뿐 아니라 그 소득을 낳는 자산들이 마음속 어느 계정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드디어 '행동경제학'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기와 노년기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외부 환경의 제약'이라는 말은 '유동성 제약'의 재진술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죠? 1문단에서 제시한 흐름 그대로, '전통적 경제학'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패턴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이를 '심적 회계'를 통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으니 '심적' 회계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단어의 의미 최대한 살려 주시고, '심적 회계'라는 말이 어떻게 '자발적 행동'과 연결되는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② #재진술 #정의 제시

'심적 회계'라는 말을 재진술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산을 마음속, 즉 '심적'으로 별개의 계정 속에 배치하고 다른 원리를 바탕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네요! '저축과 소비'라는 카테고리는 잊지 않은 상태로 '심적 회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③~⑥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비교/대조

'자산의 피라미드'는 앞에서 말한 '별개의 계정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는 대부분이 지출에 쓰인다고 하니, 피라미드 아래 쪽에 있을수록 지출에 쓰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적 회계' 개념을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례까지 들어 주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저축 예금'이라는 피라미드 상위의 자산을 사용하면 되는 데도 이자율이 매우 높은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20% 정도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저축'을 하는 것인데, 사실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여기서 '전통적 경제학'과의 차이점이 보였다면 매우 훌륭하겠죠? '전통적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가정했으나 '행동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 것이예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이라는 비교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 있는 모습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 '노후 대비용 자산'들을 놓아 둔다고 합니다. 이런 자산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비'를 최대한 미루는 자산들이예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비합리적'으로 '현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산의 피라미드'로 비유된 '심적 회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네요.

⑦ #비교/대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심적 회계'가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전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소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소비가 제한되면 당연히 '전용 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나아가 특정 연도에 행하는 '소비'가 '마음속 계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역시 '심적 회계'에 대한 설명이 재진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적 회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저축과 소비'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주장 비교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이라 가정하고 ‘저축과 소비’를 설명했다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 가정하고 ‘저축과 소비’를 설명한 것이죠.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다시 잡으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 행동경제학에서는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한다.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이상 현상’을 ‘외부 환경에 따른 제약’으로 설명하고, ‘행동경제학’은 ‘자발적 선택’으로 설명합니다. ‘비교/대조’되는 동시에, 행동경제학의 주장이 드러나는 문장이니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장입니다.

4문단

①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전 생애에 걸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②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이다. ③ 심적 회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경제학이 주목했던 유동성 제약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심적 회계가 당장의 유혹을 억누르고 현재의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 곧 저축을 스스로 강제하는 기제라면, 퇴직 연금이나 국민 연금 제도는 이런 기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행동경제학’에서도 사람들이 ‘최선’을 알고,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에서 주장한 내용의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하네요. ‘전통적 경제학’이 사람들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 제약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그게 ‘심적 회계’이고요. 그냥 두면 현재의 유혹에 다 빠져버릴 수 있으니, ‘마음속 신성한 계정’을 만들어서 그 자산만큼은 ‘소비’를 자제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말들의 재진술이에요.

③ #재진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유동성 제약’을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자발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즉,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만큼,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행동경제학’의 주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④ #재진술 #비교/대조

이러한 ‘심적 회계’는 현재의 지출, 즉 ‘소비’를 미래로 미루어 ‘저축’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강제하는 기제입니다. 이 건 똑같은 말인데, 갑자기 ‘퇴직 연금’이나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저축 강제’라는 기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납득’하고 이해하면서, ‘심적 회계’와 ‘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각각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축 강제’의 기제가 발동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재진술되는 ‘심적 회계’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이다.

‘심적 회계’의 정의가 등장하는 동시에, 재진술을 통해 ‘이상 현상’의 원인이 ‘자발적 선택’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재진술일 뿐이에요. 화제를 중심으로 재진술하며 정보량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㉔

- ① 이상 현상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상 현상을 분석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지.
해설	‘이상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경제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고, 애초에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였죠?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 ② 퇴직 연금 제도는 개인의 심적 회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퇴직 연금은 사회적이었지.
해설	‘퇴직 연금 제도’는 ‘사회’가 사람들의 소비를 줄여주는 제도이죠? ‘심적 회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③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미룸으로써 미래의 지출 능력을 높이는 행위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한 말 아니야?
해설	4문단에 명시적인 근거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애초에 '저축'이라는 단어의 뜻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이 '저축과 소비'였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저축'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④ 심적 회계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본능을 억제하려는 자기 통제 기제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심적 회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니.
해설	'심적 회계'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본능, 즉 미래의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다 소비해버리는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자기 통제 기제'였어요. 이 지문에서 몇 번이고 재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⑤ 자산 피라미드의 하층부에 있는 자산일수록 인출을 하지 않으려는 계정에 배치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층부에 있을수록 지출하는 거잖아.
해설	'자산 피라미드'의 하층부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산은 '현금'인데, 이는 대부분 지출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층부'에 있는 자산일수록 지출에 쓰이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1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전통적 경제학 / ㉡ 행동경제학

- 이 지문의 핵심 정보들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행동 가정'이라는 비교 포인트를 기반으로 각각 '합리적', '비합리적'이라는 가정을 세운 이론이에요. 이에 따라 '소비 패턴'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각각 '유동성 제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심적 회계'라는 '자발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해놓고 선지 판단에 나서야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해놓고 선지 판단에 나서야겠죠?

① ㉠과 ㉡에서는 사람들이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잖아.
해설	'행동경제학'과 달리, '전통적 경제학'은 사람들을 유혹에 취약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최적의 소비 계획을 실천하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존재로 생각하죠. 두 경제학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는 선지죠?

② ㉠에서는 연령대별 소비의 특성을 자발적 선택으로 이해하고, ㉡에서는 그 특성을 외부적 제약 요인에서 찾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7번 문장,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대로 써놨네.
해설	'자발적 선택'과 '외부적 제약 요인'은 두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외부적 제약 요인'을, '행동경제학'은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죠?

③ ㉠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원인을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에서는 그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7번 문장,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잡아둔 차이점이네.
해설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 '전통적 경제학'의 핵심 주장이었고, 개인의 '자발적 선택', 즉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유동성 제약'이 나타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주장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에 해당하니,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④ ㉠에서는 ㉡에서와 달리 유동성 제약이 심화되면 소비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행해진다고 볼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동성 제약은 곧 소비 제한인데 무슨 소리아.
해설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모두 '유동성 제약'이 심화되면 '소비'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원인을 다르게 파악할 뿐이죠. '유동성 제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쉽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⑤ ㉠과 ㉡에서는 모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는 대신 저축 예금을 인출하는 선택이 금융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높은 금리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저축 예금을 인출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건데 왜 부정적으로 판단해?
해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는 대신 저축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합리적’ 상황이라는 말로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합리적’ 행동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저축하는 것인데, 5번 선지의 내용은 이와 정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모두 ‘합리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국가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세법을 개정하여,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다. 자동차·카드·주택 등 여러 영역에서 허용되던 공제 대상을 주택 담보 대출로 제한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확대를 유도했다.

- A 국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 공제 대상을 줄인 모습입니다. ‘공제’와 같은 어휘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 주시면 돼요. 즉, ‘세금 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영역에서 허용되던 공제 대상이 ‘주택 담보 대출’로 제한된 모습입니다. 다른 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주택’을 살 때는 이를 공제해주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 있으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려고 했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은행들은 주택가격과 기존 담보 대출액의 차액을 담보로 한 2차 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생겨나고 주택 가격 거품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했고 노인 가구들도 2차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 이렇게 되자 은행들은 주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것이니, 은행 입장에서 이를 최대한 이용해 큰 수익을 남기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주택을 활용한 대출 상품이 늘어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주택 가격 거품’을 불러일으킨 모습입니다. ‘거품’, 즉 ‘버블’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공부했었죠?

이렇게 되면서,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붕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보루’를 보고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경’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이 <보기>는 지문과 연관되는 내용일 테니까요. 사람들의 ‘심적 회계’ 체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원래는 ‘자발적 선택’으로 ‘유동성 제약’의 상황을 만들었던 노인 가구들도 대출을 늘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과 비슷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들의 ‘소비 수준’은 낮아야 하는데, ‘대

상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출’을 통해 중년기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된 것이죠. 즉, 노인들도 ‘자발적 선택’으로 ‘유동성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용 가능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또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을 늘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졌고 마침내 20여 년 후 금융 위기 사태가 발발했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 거품’에 따라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 즉 ‘소비’를 늘렸다고 해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걸 팔아야 자기 돈이 되는 건데, 팔기도 전에 마치 돈을 번 것처럼 생각하며 ‘소비’를 늘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역시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심적 회계’가 망가진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고, 그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앞에서 공부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로 인해 주택 가격 거품이 걷히자 사람들의 ‘소득’이 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기반으로 지문의 ‘심적 회계’를 <보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정도 정리는 할 수 있어야 경제 지문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1980년대 후반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 촉진한 새로운 대출 상품에 대한 A 국가 국민들의 대응으로 볼 때, 주택 자산이 전통적으로 지니던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경’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정리한 내용이에요.
해설	새로운 조세 정책에 대해 A 국가의 국민은 ‘대출을 늘렸죠? 이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했어요.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경’으로 여겨서 최악의 사태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담보’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성격이 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보기>를 보면서 미리 정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② 정부 정책과 금융 관행의 변화가 야기한 위기로 볼 때, 금융 위기 이후의 A 국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게끔 ‘심적 회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필요로 했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7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동성 제약을 완화한다는 건 대출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 이러면 똑같은 일 반복이지.
해설	<보기>에 의하면, ‘금융 위기’는 사람들의 ‘심적 회계’ 체계가 무너져 주택을 이용한 대출에 거리가 멀어진 환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유동성 제

	<p>약이 완화된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금융 위기 이후'의 A 국가가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다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게끔 '심적 회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지난 몇 십년 간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2번 선지의 내용은 결국 <보기>의 상황을 한번 더 겪자는 것이기에, '금융 위기 이후'의 대처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보기>에서 말한 '금융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네요.</p>
--	---

- ③ '자산의 전용 가능성' 제고가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로 이어졌던 것으로 볼 때, A 국가에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1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출 통해서 소비를 늘린 건 전용 가능성 제고, 자발적 선택 확대라고 할 수 있지.
해설	주택 담보 '대출'을 늘린 것은 곧 '자산의 전용 가능성' 제고와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로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가진 자산의 용도를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음을,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위기를 통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 ④ 부동산 거품 현상으로 초래된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볼 때, 금융 위기 이전의 은행들은 주택을 저축이 아닌 소비 확대의 수단으로 바꾸도록 유도함으로써 A 국가 국민들이 장래를 대비할 여력을 약화시켰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택을 통해 대출받아 소비하려고 했으니 장래를 대비할 여력을 약화시킨 것이지.
해설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주택을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심적 회계'가 무너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 위기 이전의 은행들이 실시한 대출 정책 때문에 주택을 '저축'이 아닌 '소비'의 수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의 주택은 '노후 대비용 자산'이었는데, 이것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늘렸으니 당연히 '장래를 대비할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들도 2차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예측이 실현되었다고 여겼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득이 없는데도 소비를 했다는 건 전통적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비 패턴 그래프의 모습이네.

해설	<p>일단 <보기> 속에서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는 '노인'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그 수준까지만 '소비'해왔던 노인들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소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말했던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소비 패턴'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네요.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함께 없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일어나니까요.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들'을 '노인'으로, '지출'을 '소비'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선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선지는 지문과 <보기> 내용의 재진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다.</p>
----	---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p>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p> <p>②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p> <p>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④ 경제 제재 기본 지식 : '금리', '통화량' 등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p>

지문 내용 총정리
<p>'금리', '저축', '소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보기>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대출'과 '거품', '금융 위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큰 밀어올리기' 관련 <보기> 문제와 연계해서 경제 관련 배경지식을 넓혀보도록 합시다.</p>

5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5LEET [1~3] 인문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 ☆☆

1문단

①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②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③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릴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④**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⑤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⑥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 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⑦**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①~③ #화제 제시 #재진술 #정의 제시

'문학은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합니다. 이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명제인데,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고 해요. 문학에서 법은 규범·규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릴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규범·규율이라는 점에서 약자들을 구원할 수단이면서도 약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기 힘든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⑦ #정의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 제시

문학은 '감성적 호소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호소력은 법의 제·개정을 이끌기도 한다고 해요. 영국에서 유행한 '뉴게이트 소설'이라는 사례를 통해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범죄 문학 장르인 '뉴게이트 소설'은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 문학이 그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는 앞 문장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것이네요. 나아가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지문의 화제겠지요? 과연 어떤 식으로 '범죄 담론'을 묘사했길래, 범죄 문학 장르가 형법 개혁까지 이끈 것일까요? 이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⑥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 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이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범죄 문학 장르가 법적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을 준비를 해야 해요.

2문단

①불위-리턴의 『폴 클리퍼드』는 뉴게이트 소설 열풍의 서막을 연 작품이다. ②그 서두에서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가 영국 형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법의 두 가지 근본적 야만성, 즉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 그리고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피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③범죄자가 들끓는 술집에서 유년기를 보낸 클리퍼드는 소매치기 누명으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거듭한다. ④법정에 선 그는 죄 없는 소년으로 감옥에 갇던 자신이 법을 깨뜨릴 준비가 된 남자로 그곳을 나왔으며, "당신들의 법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더니 이제 죽이려 든다."라는 항변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한다. ⑤**법은**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만을 위해 존재할진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①~② #사례-원리 연결 #주장 제시

먼저 '불위-리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게이트 소설' 열풍의 서막을 연 작품인데,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로 영국 형법의 두 가지 야만성의 교정을 제시했어요. 그 야만성 중의 하나는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이고, 또 하나는 피에 굶주린 형법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 '형법전'도 문제이고, 이에 따라 수감되었을 때의 '행형' 역시 수감자가 교화되기보다는 타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불위-리턴'은 형법전의 처벌이 가벼워져야 하고, 행형 역시 교화 위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③~④ #사례-원리 연결

이 책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클리퍼드'는 범죄자가 들끓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누명을 써 수감 생활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일종의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불위-리턴'의 주장과 엮어서 읽어야 해요. 이 소설에게는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가 박탈되는 수준의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을 것이고, 행형 과정에서도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에 '클리퍼드'는 법을 깨뜨릴 준비가 된 남자로 자신을 칭하면서,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라는 이 지문의 화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법이라는 것은 결국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 즉 상류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불위-리턴'의 생각이에요. 그는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 즉 생존을 위한 범죄의 상황에 내몰아놓고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강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불위-리턴'은 가벼운 처벌과 교화 위주의 행형으로 형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렇게 화제와 엮어서 주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 서두에서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가 영국 형법의 두 가지 근본적 야만성, 즉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 그리고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피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 '불위-리턴'이 말하고자 하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②불워-리턴의 후속작 『유진 아람』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③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에인즈워스의 『록우드』 또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범죄 서사를 구성하고 노상강도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④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던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⑤소설이 연구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

① #정의 제시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자’와 이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해를 해 보면, 원래는 죄를 짓고 ‘참회하는 자’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용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전도시켜 마치 ‘자비를 베푸는 자’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이들이 전도시킨 것은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추궁당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범죄자를 미화하는 ‘폴 클리퍼드’의 내용과 ‘범죄자를 신비화’했다는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②~③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불워-리턴’의 후속작에서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전도된 역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의 역할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나아가 ‘에인즈 워드’라는 사람의 작품에서도 범죄 서사를 영웅의 일대기처럼 낭만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요. 이는 ‘범죄자를 신비화’하는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작품의 내용을 일종의 사례로 보고 연결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그동안 ‘지배계급’은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복적 설정, 즉 역할이 전도된 모습에 대해서는 격렬히 비난했다고 해요. 소설이 연극이 되면서 중산계급은 물론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범죄가 우상화되면 그 타겟은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지배계급’이 될 테니까요.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문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사실 앞 문단의 ‘폴 클리퍼드’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부터 범죄자를 너무 미화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더 훌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글을 읽었다면, 이 문장을 보면서 더욱 쉽게 끄덕끄덕했을 것입니다.

4문단

①작가는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죄판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②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지점까지 이 소설은 뉴게이트 소설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랐다. ③하지만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자 인물의 유년기를 조명했던 앞선 작가들과 달리, 새커리는 **범죄성이 개인의 병증이나 타고난 악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 했다.** ④주人公의 처형 장면은 기사 인용 형태로 건조하게 기술되었다. ⑤처형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짐으로써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⑥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 ⑦수전노로 악명 높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자 살인을 조력한 주인공의 욕망은 독자에게 뜻밖의 호소력이 있었다. ⑧범죄에 대한 구토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약물을 투입하겠다는 작가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① #주장 제시 #화제의 흐름

이번엔 ‘새커리’라는 사람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워-리턴’이나 ‘에인즈워스’와는 달리 범죄자를 미화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범죄자를 미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인 뒤에 이러한 주장이 제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해요.

②~⑤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지금까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내용을 일종의 사례로 여기며 이해해주시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것은 전형적인 ‘뉴게이트 소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새커리’는 범죄성은 개인의 문제임을 밝혀 공감을 차단하려 했고, 이에 처형 장면을 건조하게 기술하고, 그 처형에 어떠한 서사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한 채 서술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정말 건조하게 ‘범죄자는 나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죠.

⑥~⑧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하지만 이 작품은 작가인 ‘새커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혔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스토리 자체가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이에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다는 ‘새커리’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작가는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죄판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결국 이 지문도 일종의 인문 지문이기에, ‘한마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 문장처럼 최초로 제시되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5문단

①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역시 범죄 소설의 자장 안에서 읽힌다. ②**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는 작법은 여기서도 사용되었으며, 익살스럽고 입체적인 악역들은 오락적 요소를 배가했다. ③악인 대신 어린 올리버가 주인공으로 설정됐으며, 그 주변 인물인 소매치기들은 자기 삶을 ‘로맨스와 열정이 가득한 유쾌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삶이 교수대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④반면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단지 죽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혔음에도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쳤고 마침내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⑤**뉴게이트 소설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이 소설이 꾸준히 읽힌 데엔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법질서 자체를 교란하지는 않았던 작가적 선택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이번엔 ‘디킨스’의 주장을 체크해봅시다. 그의 작품 역시 범죄 소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다른 ‘뉴게이트 소설’처럼 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면서, 오락적 요소를 배가하여 ‘새커리’처럼 지나치게 건조한 서술은 피한 모습입니다. 나아가 어린 주인공 주변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삶을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모습 등도 보이는데, 결국 그 삶이 교수대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며 범죄를 미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④~⑤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그 와중에 주인공인 ‘올리버’는 범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치고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5번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디킨스’가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불위-리턴처럼 지나치게 범죄를 미화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덕에 ‘뉴게이트 소설’의 시대는 저문 후에도 ‘디킨스’의 소설은 꾸준히 읽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디킨스’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들을 절충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훌륭한 독해를 한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뉴게이트 소설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이 소설이 꾸준히 읽힌 데엔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법질서 자체를 교란하지는 않았던 작가적 선택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디킨스’의 ‘한마디’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생각해놓고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②

① 형법 개혁 운동은 범죄소설 열풍의 계기이자 성과였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범죄 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는 ‘형법 개혁 운동’이 범죄소설 열풍의 ‘계기’였음을 잘 보여 주죠? 나아가 실제로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했었죠? 1문단을 읽으면서부터 체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②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를 질병으로, 형벌을 치료로 이해한 당대 범죄 담론을 강화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 완전 반대지.
해설	‘뉴게이트 소설’의 핵심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당대의 가혹한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위-리턴’의 입장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 줬었죠?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반대로 이해한 선지기에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③ 『캐서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문학작품이 항상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명시적 근거	4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커리의 의도대로 읽히지 않았지.
해설	‘새커리’는 ‘캐서린’을 통해 범죄에 대한 구토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악물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주인공의 욕망에 독자들이 호소력을 느끼면서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커리’의 주장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크했던 정보이니 가볍게 지울 수 있겠네요.

④ 기득권층은 뉴게이트 소설의 대중적 전파력 확대가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 여겼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지배계급은 ‘뉴게이트 소설’이 대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불온한 열광’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뉴게이트 소설’은 ‘전복된 설정’, 즉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⑤ 『폴 클리퍼드』의 경우와 달리 『올리버 트위스트』는 범행 착수의 기로에 선 개인의 선택과 의지력을 강조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조한 '폴 클리퍼드'와 달리, '올리버 트위스트'의 주인공인 '올리버'는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력을 강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은 죄에 비해 과한 형을 구형하거나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 죄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한 형벌을 말하는 거지.
해설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피에 굶주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한 형벌을 교정하는 것이 작품의 의도임을 밝힌 '불위-리턴'의 주장을 납득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 ② ㉡은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을 가리킨다.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 ㉡은 살기 위해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했습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순응'한다면 '교수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이와 같이 미리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은 범죄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범법과 준법의 경계를 허물려는 감수성을 가리킨다.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복적 설정!
해설	㉢은 '지배계급'이 비난한 '뉴게이트 소설'의 면모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범법과 준법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교수대에 낭비된'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 ④ ㉢은 대중의 기대에 따라 범죄자를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려내는 작가를 가리킨다.

작가는 ㉢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진 안 되며 무죄판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커리가 반대한 건 불위-리턴같은 모습이지.
해설	㉢은 '새커리'가 지양하는 모습입니다. 범죄자를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사용하는, '불위-리턴'과 같은 모습이죠.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선지네요.

- ⑤ ㉣은 범죄자에 대한 독자의 감정입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현되는 정의를 가리킨다.

처벌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짐으로써 ㉣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새커리의 주장 그 자체지.
해설	㉣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독자의 범죄자에 대한 공감을 '봉쇄'하는 것으로, '새커리'의 주장 그 자체입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3. 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디킨스는 법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범죄의 해악에 대한 훈계를 한 작품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디킨스는 둘 다 했는데?
해설	'디킨스'는 '불위-리턴'과 '새커리'의 절충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법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범죄의 해악에 대한 훈계를 한 작품에서 동시에 수행했죠. '디킨스'의 핵심 주장을 무시한 선지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② 불위-리턴과 디킨스 모두 뉴게이트 소설의 작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자기 정당화의 기회를 많이 주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디킨스는 그렇지 않지.
해설	‘불위-리턴’은 범죄자에게 자기 정당화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자신의 작품 속에 ‘올리버’와 같은 인물이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을 넣는 등, 범죄자에게 자기 정당화의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디킨스’의 주장을 무시한 선지이기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③ 에인즈워스와 새커리 모두 범죄소설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나 참회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인즈워스는 불위-리턴이랑 똑같은 입장이지.
해설	‘에인즈워스’는 ‘불위-리턴’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범죄자의 교화나 참회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새커리’와 달리, 독자들로 하여금 범죄자의 입장에 공감하게끔 했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④ 불위-리턴은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을 찾기 위해, 그리고 에인즈워스는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범죄자의 유년기를 다루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3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은 새커리가 중요시하는 거지.
해설	‘불위-리턴’은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뛰어드는 이의 모습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새커리’가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에도 결국 주장을 묻는 선지네요. 한편, ‘에인즈워스’는 범죄자의 일생을 마치 영웅의 일대기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에인즈워스’와 관련된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 불위-리턴은 새커리와 달리 범죄자와 독자 대중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잘 요약했네.
해설	‘불위-리턴’과 ‘새커리’의 주장을 잘 요약한 선지입니다. 범죄자와 독자 대중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고

자 한 ‘불위-리턴’과 달리, ‘새커리’는 애초에 범죄자에게 독자가 공감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핵심 point*</p> <p>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p> <p>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③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p>
--

<p>*지문 내용 총정리*</p> <p>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을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작품의 내용을 일종의 사례로 생각하며, 그 사례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연결짓는 태도가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어려운 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독해 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도록 합시다.</p>

5주차 <경제 제재의 지문 읽기>

2017LEET [14~17] 사회(경제) '금융위기의 원인' ☆☆☆☆

이번 지문은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문들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늘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지문의 내용들은 확실하게 배경지식화하도록 합시다.

1문단

①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도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이것은 금융위기가 여러 차원의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③은행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④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시각에 기초해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①~④ #화제 제시

첫 문단은 길지만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이 지문의 전부예요. 총 네 가지가 나온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모두 '은행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위기를 맞으면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2문단

①우선,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지는 현상, 즉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②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준비제도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본질적 측면이다. ③이 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예금주들의 예상이 바뀌면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④예금은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해져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사람이라면 남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⑤이처럼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은행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⑥이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투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는 현상으로 금융위기를 살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간단해요.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예상하면 진짜 취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상'한 내용대로 '실현'되는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는 건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부분준비제도'라는 것을 설명해주네요. 은행이 예금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예금) 은행은 그 돈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및 대출 사업 등을 하는데, 그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맡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돈을 아무 문제없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정 비율의 돈은 쓰지 않고 '지급준비금'으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수능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소재이니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해요.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 '부분'적으로 '준비'하는 '제도'라는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③~④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런 '부분준비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예금주들이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예상'하는 것만으로 예금 인출이 쇄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럴겠죠. 은행이 곧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일단 자기가 넣어둔 돈부터 찾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니까요. 이를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인 '예금'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즉, 특정 날짜까지 맡기는 게 아니라 (만기가 없고) 맡긴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선착순) 것이기에, 은행이 곧 망한다면 빠르게 돈을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때문이다'라는 표지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재진술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⑤~⑥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를 감당하려는 은행은 당연히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다보면 자산의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금주들의 '예상'으로 인한 행동을 맞춰주려다가 그 예상이 정말로 실현되면 서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화제는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짐.'이라는 정보는 곧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화제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지문 독해에 실패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챙겨가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⑥이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투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라는 정보가 곧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지문 독해의 핵심이니까요!

3문단

①둘째,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②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잔재이고 통상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③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④이러한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수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

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⑤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⑥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 형태를 띈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다음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살피는 관점입니다. 카테고리 확실하게 나눠주면서 읽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엔 '주식회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음 문장에서 '따라서'라는 표지를 바탕으로 재진술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뜻이겠죠?

즉,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은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이고'와 같은 말이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이라는 말은 '유한책임'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부채액'이 곧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지기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유한'하게 책임을 지면 되기에 회사가 망하는 건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니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 나아가, 이 내용은 배경지식으로 만들어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④~⑤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아무튼, 이렇게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중요하고 '손해'는 중요하지 않으니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일 테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주주 본인과는 큰 상관이 없으니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회사와 회사의 채권자들(대표적으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기업 등이 있겠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든 것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어차피 '자기자본'이 적어 파산할 확률이 높다면, 주주 입장에서선 도박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⑥ #화제의 흐름 #재진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금융위기'의 원인 아니었나요? 갑자기 '주식회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했더니,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즉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낮은' '주식회사' 형태를 띈다고 해요. '부채비율이 높다=자기자본비율이 낮다'라는 재진술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추구했고, 이 사업들이 실패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네요. 주주들이 은행의 붕괴에 '유한'한 책임, 즉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모른 척했더니 그 은행의 채권자들, 이들에게 예금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문단에서 '예금'을 일종의 '채무'로 설명했다는 걸 생각하면 '채권자=예금주'라는 생각도 가능했을 겁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법 지문 파트에서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⑥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 형태를 띈다.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처리하다가, '은행'을 보자마자 다시 '금융 위기'라는 화제를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정보는 하나의 화제로 모이는 거예요.

4문단

①셋째, 은행가의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②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로 이해해왔다. ③하지만 최근에는 은행가들에 의한 은행 약탈의 결과로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④과도한 위험 추구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행위를 은행가가 선택하는 것이다. ⑤이에 비해 은행 약탈은 은행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⑥예를 들어 은행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은행으로부터 낫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지배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가가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비교/대조

다음으로 '은행가의 은행 약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카테고리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와 비교/대조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는 3문단에서 이야기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3문단의 내용은 '전통적인'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은행 약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네요.

④~⑤ #비교/대조 #단어의 의미 제시

비교/대조되고 있으니, 이들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험 추구'가 은행의 '수익률'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은행 약탈'은 은행가의 '사적인 이익'에 목표를 두는 것이네요. 모두 공통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 악화'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목적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은행'을 '약탈'한다는 뜻이었네요.

⑥ #사례-원리 연결 #화제의 흐름

이를 사례까지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낫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 자신의 성과급을 위해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은행가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은행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핵심은 이러한 '은행 약탈'이 '은행위기'를 낳았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로 이해해왔다.

이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과도한 위험 추구'를 보고 3문단의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 지 확인해볼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말에 주목하는 것. 지문 독해의 수준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5문단

①넷째,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②위의 세 가지 시각과 달리 이 시각은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③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상승하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정 기간 하락하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부채의 증가를 낳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을 낳는다. ⑤이러한 상승작용으로 인해 거품이 커지는 과정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게 되므로,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현실적 조건을 강화시킨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비교/대조

마지막은 '이상 과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시각과 달리,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한 시각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앞의 세 가지 시각은 모두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이상'한 '과열'을 낳아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보는 것이 이번 카테고리'의 내용이었네요.

③~⑤ #사례-원리 연결 #화제의 흐름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 가격의 상승/하락을 보고 그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재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며, 이렇게 수요가 몰린 자산의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지문들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던 '자산 시장의 버블'이 사람들의 '비합리적' 행동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산 시장의 거품은 경제 주체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게 되었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조건을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네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지문의 내용들은 모두 배경지식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내용을 모른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지문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자명하니까요.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
- ㉡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
- ㉢ 은행가의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
- ㉣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

- 사실상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을 묻는 문제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 ① ㉠은 은행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예금주들의 행동에 주목하여 금융위기를 설명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분준비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자기 실현적 예상이 일어나는 것이었지.
해설	㉠은 '부분준비제도'라는 제도가 가진 취약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이 제도에서 '자기 실현적 예상'을 하게 되는 예금주들의 행동이 핵심이 되었죠?

- ② ㉡은 경영자들이 예금주들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위기를 설명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결국 주주들의 말을 들어준 거니까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한거네.
해설	㉡은 '주주'들의 '고위험 고수익 사업' 추구 경향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은행의 경영자들이 예금주와 같은 '채권자'들의 이익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했으니 이러한 사업들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겠죠.

- ③ ㉢은 은행의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행가도 일부 구성원이니까 맞지.
해설	㉢은 '은행가'라는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이해합니다.

- ④ ㉣은 경제 주체의 행동에 대한 귀납적 접근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찰을 이용했으니 귀납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해설	㉣은 ㉠~㉢과는 달리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여 금융위기를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것, '귀납적 접근'이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수능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선을 넘은 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귀납'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귀납'이라는 개념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	--

⑤ ㉠과 ㉡은 모두 경제 주체들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 결과가 금융위기라고 본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5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는데 폭락하는 상황이 금융위기의 조건이 된다고 했잖아.
해설	㉠에 한해서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상'의 정의 자체가 경제 주체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니까요. 반면 ㉡은 경제 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예상이 '거품 발생'이라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예상은 '자산 가격 상승'이었는데, 실제론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예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각 관점을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네요.

15. ㉠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④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

- ㉠은 여러 재진술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자산 가치-부채액이 곧 '주주의 몫'이 된다는 것과 함께 은행이 망해도 주주의 손실은 자신의 투자액으로 '유한'하기에 '이익 구조'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파산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에 못 미칠 경우에 주주들이 져야 할 책임은 한정되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한책임의 정의 그 자체네.
해설	파산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주주의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주주들의 책임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큼으로 '유한'합니다. 즉,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회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액을 뺀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그 값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산 가치-부채액이 곧 주주의 몫이었지.
해설	'자산 가치-부채액'이 '주주의 몫'이라는 건 미리 정리한 내용이지?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그것은 모두 주주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③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는 주주들의 이해와 무관하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한책임!
해설	주주의 책임은 '유한'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부채를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유한'하게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④ 주주들이 선호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은 성공한다면 회사가 큰 수익을 얻지만, 실패한다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한 말 아니야?
해설	역시 맞는 말이지? 물론 성공한다면 주주가 엄청난 이익을 보겠지만, 회사가 이익을 보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패한다면 주주와 달리 회사만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곧 '금융위기'를 낳았다는 게 ㉠의 핵심이었습니다.

⑤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산 가치-부채액이 줄어들면 주주한테 안 좋은 거잖아.
해설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 가치-부채액'이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주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높여려 한다니요. 이는 자신의 이익을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바로 정답이네요.

16. 윗글에 제시된 네 가지 시각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1980년대 후반에 A국에서 장기 주택담보 대출에 전문화한 은행인 저축대부조합들이 대량 파산하였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받았다.

- 무언가 복잡해보이지만, <보기>에 나온 다양한 사실들을 ㉠~㉣ 연결하여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길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A국에서 은행들이 대량 파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1970년대 이후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저축대부조합들의 파산이 가장 많았다.

- 먼저 197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저축대부업체들의 파산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은 대표적인 '거품'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고 앞으로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빚을 얻어 자산을 구입하는 경제 주체들이 늘어났다.

- 야나니 다름까 이를 본 많은 경제 주체들이 빚을 얻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이 이야기하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가 '자산 가격 거품'이라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이어진 것이죠.

○ A국의 정부는 투자 상황을 낙관하여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예금주들이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 형태였던 저축대부조합들 중 다수가 1980년대에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

- 여기에 정부까지 '이상 과열' 현상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요. 심지어 채권자인 '예금주'가 주인이었던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에서 이야기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가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 파산 전에 저축대부조합의 대주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 그런데 파산 직전, 대주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은행 약탈'까지 일어났겠어요. 파산 직전 자신의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한 은행가들이 자신에게 보상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약탈'을 감행한 것이죠.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상 ㉠을 제외한 모든 시각이 맞아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정도와 고위 경영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보상을 지급한 정도가 비례했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고위 경영자들을 비판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 실현적 예상에 대한 내용은 <보기>에 없는데?
해설	애초에 ㉠은 <보기>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명시적 근거	정도와 고위 경영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보상을 지급한 정도가 비례했다는 점을 들어'라는 건 <보기>에서 알 수도 없고, ㉠의 관점과 일치하지도 않죠. 전체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선지입니다.
--------	--

② ㉡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금주들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늘려 은행이 위기에 빠진 점을 들어, 예금주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태를 비판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5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에 대한 이야기잖아?
해설	이건 '이상 과열'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에서 강조하는 내용일 겁니다. ㉡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해야 해요.

③ ㉢은 저축대부조합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을 들어, 고위험채권 투자를 감행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예금주의 이익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은행을 옹호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식회사 이야기는 ㉢에서 해야 하는 거 아냐?
해설	'주식회사', '고위험채권' 등을 강조하는 건 ㉢이 아니라 ㉡일 것입니다. 나아가 '고위험채권 투자'를 감행한 결정이 '예금주의 이익을 증가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고위험채권 투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④ ㉣은 저축대부조합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틈타 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한 점을 들어, 저축대부조합들의 행태를 용인한 예금주들을 비판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위험채권 투자는 ㉢에서 이야기해야지!
해설	역시 ㉢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를 용인한 건 '예금주'가 아니라 '경영주'들이겠죠? '예금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기만 한 거예요. '주주', '경영주', '예금주'와 같은 주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네요.

⑤ ㉤은 차입을 늘린 투자자들,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저축대부조합들, 규제를 완화한 정부 모두 낙관적인 투자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을 들어, 그 경제 주체 모두를 비판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5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부 낙관적인 투자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합리적으로 예상했으니 ㉤에서 비판할 만하지.
해설	㉤의 핵심은 '비합리적인 예상'이 낳은 '이상 과열'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기>

에 나오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믿음' 속에서 금융위기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은 당연히 이러한 경제 주체들을 모두 비판하겠죠.

17. ㉠~㉢에 따른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실 1문단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화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문 속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로 제시된 모습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수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추론 문제의 형태네요. 결국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①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보험 제도는 ㉠에 따른 대책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파산해도 예금을 지급해준다면 굳이 빠르게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지 않겠네.
해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예금주들이 선불리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 이를 ㉠에 따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예금은 예금 보험 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액이든 소액이든 다 보호해야 ㉠이 안 일어나지.
해설	특이하게 1번 선지에서 이야기한 '예금 보호 제도'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예금을 여기서 제외해버리면, 고액의 돈을 많이 맡긴 예금주들이 은행의 지불 능력이 낮다는 예상을 하는 순간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겠죠? 고액의 예금들이 인출된다는 것은 은행의 파산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③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는 ㉢에 따른 대책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좀 낮아지겠지.
해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선호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해서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건 ㉢에 따르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

본비율과 관련된 정보를 납득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쉽게 지우기 힘든 선지였을 거예요. 지문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납득하는 태도를 갖춰주도록 합시다.

생각 심화

이 선지에서 말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앞에서 봤던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의미한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는 미시 '건전성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까지도 말이죠. 이 'BIS 비율 규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이 내용도 배경지식으로 만들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금융 감독 기관이 은행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주주 금융 거래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면 약탈을 하기 어려워지겠지.
해설	'은행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조한다면, '은행 약탈'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이는 ㉡에 따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때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면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빚을 늘리기 어려워지겠지.
해설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줄이면,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럼 아무리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해도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질 것이니,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겠네요. ㉢에 따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경제 기본 지식 :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경제 지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해설의 첫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이 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생각'을 점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얻은 지식들을 가져가는 데에 초점을 두도록 합시다. 앞으로 경제 지문을 만날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